

五臟의 本에 대한 연구

탁동률·강정수*

Study on the fundamentals of the Five Viscera

Dong-yul Tak, Jung-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In oriental medicine, there is the fundamentals to lead a stirring life, and it is an important matter that make a study of fundamentals for treatment. The su-wen(素問) mentions the fundamentals of sheng(生之本), the fundamentals of qi(氣之本), the fundamentals of feng-cang(封藏之本), the fundamentals of ba-ji(罷極之本) and the fundamentals of cang-lin(倉廩之本). They are terminologies expressing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 five viscera - heart, lungs, kidneys, liver and spleen. The five viscera are expressed through face, fur, hair, nail and lips. And the five viscera are closely connected with blood, skin, bone, muscle and flesh. Through the changes of personal appearance, we can recognize those of their internal organs. In oriental medicine, they are called as the cang-xiang(藏象).

Heart is the fundamentals of sheng(生), and it is related to spirit, blood and blood vessel. Lungs are the fundamentals of qi(氣), because they master the extensive meaning of qi(氣). Kidneys are the fundamentals of feng-cang(封藏) which means seclusion. Liver is the fundamentals of ba-ji(罷極) that have several view by concept. Spleen, stomach, large and small intestines, paunch and bladder are the fundamentals of cang-lin(倉廩), that is to say, gastrointestinal tract that ingest diet and digest it.

Key words : fundamentals of the Five Viscera, the cang-xiang, sheng, qi, feng-cang, ba-ji, cang-lin

I. 서론

한의학에서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四氣調神大論」), “四支者, 諸陽之本”(「陽明脈解」), “腎爲先天之本, 脾爲後天之本”¹⁾ 등등 이라 하여 생명활동을營爲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것이 있고, ‘治病必求於本’이라 하여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根本을 窮究하

라고 하였다.

『素問·六節藏象論』에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 … 腎者, 主蟄, 封藏之本, 精之處也. …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라 하여 生·氣·封藏·罷極·倉廩 등은 각각 五臟六腑 생리기능의 근본이고, 이들의 정상 여부는 充·華·四時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藏象’이라 하였다. 張介賓²⁾은 藏象에 대하여 “象, 形象也. 藏居於內, 形見於外”라 하여, 內在臟腑의 생리활동이나 기능변화가 외부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교신저자 : 강정수 · E-mail : omdkjs@dju.ac.kr

· 채택일 : 2007년 11월 10일

1) 李中梓, 醫宗必讀,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pp. 6-7.

2) 張氏類經, 張介賓 撰, 서울, 성보출판사, 1982, p. 33.

에 반영되는 징후를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臟腑의 기능변화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五臟六腑의 생리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藏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素問·六節藏象論』의 五臟之本³⁾에 잘 나타나 있기에, 이들을 五臟 각각의 생리기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바,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한다.

II. 본 론

1. 心者, 生之本

心은 혈액순환의 중추로 혈액의 流行을 추동하며, 한의학에서는 心の 중요성을 ‘君主之官’(『素問·靈蘭秘典論』, ‘五臟六腑之大主(『靈樞·邪客』), ‘生之本’(『素問·六節藏象論』)이라 하여 생명활동을 主宰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臟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心은 一身의 主가 되어 生死의 表象으로 心搏動과 이에 따른 순환으로 맥박이 뛰는 곳, 人身의 생명활동을 主宰하고 각 부분을 총괄한다. 특히 心은 神明을 主하고, 脈은 神이 깃드는 곳이라 하여 精神을 주관하는 생리기능이 강조된다⁴⁾. 생명활동에서 정신의식과 사유활동의 주체가 됨을 『內經』에서는 ‘精神之所舍’(『邪客』), ‘神之變也’(『六節藏象論』), ‘神明出焉’(『靈蘭秘典論』)⁵⁾이라 하였다.

1) 主神明

일반 醫書에서 ‘心爲神明之舍’라 하였으니, 心

이 主하는 것이 血이 아니고 神明으로 營氣를 主해서 一身의 주인공이라 하였고, 일반 儒書에는 “心者, 虛靈不昧, 捲之則不盈杯, 伸之則彌滿天下”라 하였다⁶⁾. 神明을 神志라고도 하는데, 陰과 陽의 兩面으로 살펴볼 수 있다. 陰的인 면은 腎에서 技巧之官으로 조화가 나오므로 그 動함이 신비하다고 보는 것이고, 陽的인 면은 心에서 火를 주관하므로 神明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病의 치료는 陽的 기능의 활성화를 뜻한다. 즉, 心腎의 寒을 征伐한다는 뜻으로 通神明을 말하니, 바꾸어 말하면 陰陽의 변화를 말한다⁷⁾.

따라서 神은 陰陽이 조화된 것으로 水와 火가 조화된 성질의 血이 神이라는 생명의 신비를 지니고 脈에 존재함을 뜻한다. 神은 造化를 만든다. 造化가 輕하면 사람이 動하고, 重하면 神이 움직이고, 極하면 天地가 動한다. 사람의 몸에는 七十二萬神⁸⁾이 있어 心이 사람의 君이 되어 이를 통솔한다. 여기에 五臟이 정해져 主人으로 삼고, 六腑를 정해 五臟의 用으로 삼으며, 血脈을 분포하여 통신의 器로 삼아, 氣血을 구분하여 造化之體로 삼아 氣로 하여금 主가 되게 하고 血로써 이를 따르게 한다. 肌肉을 정하여 臟腑의 諸神의 糧食으로 삼으니, 脾는 肌肉을 주관하여 脾가 國庫를 관장한다.

動함에 體系가 있고, 用함에 規定이 있다. 통신의 脈은 長短이 있고, 氣血의 動함은 淺深이 있다. 여기에 五臟으로 하여금 방위를 정하여 각기 그 책임을 수행하니, 六腑는 五臟에 應하여 呼하면 즉시 動하고, 揮하면 즉시 退한다. 동서남북 모두 중앙으로 통하고, 深奧僻地의 통신은 媛純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氣血로써 氣力を 倍加하여 움직이게 하니, 가까운 곳은 傳令이 속한 까닭에 그 動力을 減한다. 여기에 體內構造가 갖추어진다. 무릇 臟腑의 動함은 모두 神의 힘이다⁹⁾.

3) 醫書에 ‘五臟之本’이라고 사용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五臟 전체의 생리특성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五臟 각각의 생리기능을 『六節藏象論』에 ‘〇〇之本’이라고 하였기에 ‘五臟之本’이라고 하였다(저자 註).

4)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74.

5) “心者, 君主之官, 有血肉之心, 形如未開蓮花, 居肺下肝上是也. 有神明之心, 神者, 氣血所化, 生之本也. … 主宰萬事萬物, 虛靈不昧者, 是也.”,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 82.

6) 宋点植 撰, 醫學輯要,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 280.

7)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p. 289-290.

8) 『黃庭經』에 “人身에는 七十二萬神이 있어서 이 神을 心君이 전부 통솔하므로 心은 聖하고 神明하다.”고 하였다.

9)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

2) 主血脈

『素問·五藏生成』의 “諸血者, 皆屬於心.”, 『素問·脈要精微論』의 “脈者, 血之府” 등에서 心과 血脈 및 血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心主血脈’의 기능수행은 心氣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지니, ‘氣行則血行, 氣滯則血凝’은 혈순환의 주도적인 작용이 心에 있음을 뜻한다. 이는 血의 생리기능 중 생명의推進인 면과 혈순환의推進力을 心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心藏神’으로 脈은 神의 집이라고 하였다.

心은 火를 주관하여 火가 늘 炎上하는 性을 가져 面部에 그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面色의 변화로써 心과 血脈의 기능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얼굴에는 모세혈관의 분포가 치밀하여 面色은 말초의 血순환을 나타내니 白色은 貧血을 예측하고, 紅色은 말초혈관의 확장을 의미하며, 青色은 藏血하여 散血이 안 되어 산소공급의 부족상태를 뜻한다¹⁰⁾.

3) ‘神之變’에서 ‘變’에 대한 의견

『新校正』에 “神之變을 상고해 볼 것 같으면 全元起本과 『太素』에서는 ‘神之處’라고 썼다.”고 했다. 또한 同篇에 ‘魄之處’, ‘精之處’, ‘魂之居’, ‘營之居’라고 하였고, ‘處’나 ‘居’는 처소·거처의 뜻이니, ‘神之處’라고 한 것이다¹¹⁾.

그러나 王冰·馬蒔·吳崑·張介賓·張志聰은 모두 원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王冰¹²⁾은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然君主者, 萬物繫之以興亡, 故曰心者, 生之本, 神之變也”라 하였고, 馬蒔¹³⁾은 “心者謂君主之官, 神明出焉. 故吾身與萬事萬物之所以生, 以之爲本. 神明應用, 以之變化.”이라 하였으며, 吳崑¹⁴⁾은 “七神由以動靜, 故曰神

之變. 變, 謂宰其變也.”고 하였고, 張介賓¹⁵⁾은 “心은 君主이면서 陽에 속하며, 陽은 生을 주장하고 만물은 그것에 연계되어 죽고 산다. 그러므로 ‘生之本’이라고 말한 것이다. 心은 神을 저장하고 神明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변화하므로 ‘神之變’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張志聰¹⁶⁾은 “心主血, 中焦受氣, 取汁化赤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爲生身之本. 心藏神, 而應變萬事, 故曰神之變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神之變’은 君主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神之處’는 心臟이 血을 주관한다는 입장에서 본 것으로 보여지며, 뜻은 모두 다 통한다고 하겠다.

2. 肺者, 氣之本

肺는 크게 호흡을 主司하여 인체의 모든 氣를 주관하고 있어 외부의 신선한 天氣를 받아들이고, 내부에서 생긴 濁氣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체 교환을 진행함으로써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百脈이 모여 혈액순환에 참여함으로써 水穀의 精微를 전신에 輸布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五臟六腑와 經絡의 氣 盛衰가 모두 肺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⁷⁾. 이러한 肺主氣하는 생리기능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肺者, 氣之本, 魄之處也.”(「六節藏象論」), “諸氣者, 皆屬於肺”(「五藏生成」), “諸氣憤鬱, 皆屬於肺”(「至眞要大論」)라 했는데, 王冰¹⁸⁾은 “肺藏氣, 其神魂, 其養皮毛.”하고, 張志聰¹⁹⁾은 “肺主氣而藏魄”하기 때문에 肺는 氣之本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氣라 함은 주로 衛氣의 작용을 말하며, 營氣의 작용을 말하지 않는다²⁰⁾.

판국, 1993, pp. 278-279.

10)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77.

11) 이경우 역, 편주역해 황제내경소문[1],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 264.

12) 王冰 編註, 신편 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76.

13) 馬蒔 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0.

14) 吳崑, 內經素問吳注, 제남, 산동과학기술출판사, 1984, p. 47.

15) 張介賓 편, 張氏類經, 서울, 성보출판사, 1982, p. 33.

16) 張志聰 편주, 新編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8.

17)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307.

18) 王冰 編註, 신편 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77.

19) 張志聰 편주, 新編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9.

肺主氣는 肺의 호흡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呼吸의 두 작용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一身之氣와 呼吸之氣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肺主氣

(1) 主呼吸之氣

肺는 호흡을 주관하며 氣體의 교환장소로, 膈과 같이 팽창과 수축을 계속하여 清氣를 흡입하고 또한 濁氣를 배출하는데, 이는 心臟과 달리 자체운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위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受動的으로 움직인다. 때문에 『內經』에서 “天氣는 肺로 통한다”고 하였고, 『醫鑑』에서는 “肺는 호흡을 主使하여 氣의 출입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호흡의 기능은 肺의 宣發과 肅降이 의존하며 이외에 腎의 納氣作用에 의존하는데, 肺가 吸引한 氣는 腎의 納氣에 의하여 肅降下達하게 된다. 만약 肺氣의 宣發과 肅降作用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에 영향을 미쳐 胸悶咳嗽喘促呼吸不利 등證이 나타난다.

(2) 主一身之氣

肺가 체내 각종의 氣를 주관하고 조절하는 작용을 말한다. 특히 宗氣의 생성과 산포를 통하여 一身의 氣를 관리하는데, 宗氣는 肺에 흡입된 자연계의 清氣와 脾胃의 消化吸收로 肺에 上輸된 水穀精氣가 결합하여 생성되며 胸中에 모였다가 喉嚨으로 나와서 肺의 호흡운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心脈을 관통하여 血氣를 行하고 전신에 散布하여 장부조직을 溫養함으로써 인체로 하여금 정상 기능활동을 유지케 한다. 그러므로 호흡의 정상여부는 宗氣의 생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신 氣의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肺는 氣機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氣機는 氣의 升降出入으로 기타 臟腑之氣의 운동변화를 촉진하고 조절한다. 예를 들면 肺氣의 肅降과 肝氣의 升發은 상호조건이 되어 升降平衡의

생리상태를 유지한다.

2) 脾肺와 氣의 생성

脾肺의 관계는 氣의 생성과 수액대사로 표현되는데, 이는 ‘脾主運化’와 ‘肺主氣’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脾는 氣血의 生化之原으로서 肺氣는 脾가 運化한 水穀精微에 의하여 充養되고, 脾의 水穀精微의 運化는 肺氣의 宣發과 肅降作用에 의해 전신으로 散布된다. 脾가 肺氣를 補益함을 ‘培土生金’이라 하고, 脾胃를 補함으로써 補肺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脾胃生氣之源, 肺爲主氣之樞’라 하였고, 肺氣의 강약은 脾氣의 盛衰와 관련이 있으므로 ‘脾爲元氣之本, 賴穀氣以生. 肺爲氣化之源, 而寄養於脾也’라 하였다.

또한 宗氣는 肺가 흡입한 清氣와 脾가 運化한 水穀精氣가 결합하여 생성되므로 氣의 생성에 있어서 脾肺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²¹⁾.

3. 腎者, 主蟄, 封藏之本

‘蟄’은 冬眠하는 곤충으로 여기서는 藏伏한다는 뜻이다. ‘封藏’은 閉藏 또는 蟄藏의 뜻으로, 寒水의 凝堅就下의 속성과 겨울철이 寒하고 凝堅하여 만물이 결빙하고 동물이 침거하는 형상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王冰²²⁾은 “地戶封閉, 蟄蟲深藏, 腎又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曰腎者, 主蟄, 封藏之本, 精之處也.”라 하였고, 馬蒔²³⁾는 “腎主冬, 冬主閉藏, 故腎主蟄, 封藏之本也.”라 하였으며, 張志聰²⁴⁾은 “冬令之時, 陽氣封閉, 蟄蟲深藏. 腎主冬藏, 故爲蟄, 封藏之本. 蓋蟄乃生動之物, 故[以]比生陽之氣, 至春一陽初生, 而蟄蟲復振矣. 腎爲水藏, 受五藏之精液而藏之, 故爲精之處也.”라 하였고, 張介賓²⁵⁾은 “腎者, 胃

20)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308.

21)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臟象生理學, 1997, p. 226.

22) 王冰 編註, 신편 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77.

23) 馬蒔 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1.

24) 張志聰 편주, 新編 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9.

之關也。位居亥子，開竅二陰而司約束，故爲主蟄封藏之本。”라 하여 閉藏하는 겨울에는 腎이 蟄居하면서 五臟의 精을 攝納·貯藏·封藏한다고 하였다. 이는 腎이 主蟄하여 精이 체내로부터 流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내에서 그 생리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을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精을 생식과 관련된 精液이라고 본다면 정액이 있는 곳이 腎이 된다. 腎이 간직하고 있는 腎精은 인체 생명활동의 물질기초이다. 따라서 腎의 精氣는 마땅히 굳게 저장되어야 하지, 망령되어 漏泄함을 禁忌시 한다. 腎氣가 實하면 封藏함이 견고해지고, 虛하면 漏泄된다.

또한 腎과 封藏之本은 자연계에서 北方·冬·寒·鹹味·黑色·腐臭 등과, 인체에서 骨·髮·耳·唾液·恐·志 등의 腎系와 상응한다. 腎의 주요 생리기능을 통하여 封藏之本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藏精, 主生長·發育·生殖

腎이 저장하는 ‘先天之精’은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므로 腎을 ‘先天之本’이라고도 한다. ‘腎藏精’은 두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五臟六腑의 精氣(後天之精)를 藏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腎者主水，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라고 하였다. 이러한 五臟六腑의 精氣는 음식물의 精華부분에서 유래하여 인체 各部의 조직과 기관을 영양하고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物質基礎로 腎에 간직되는 것이며, 수시로 五臟六腑의 수요에 응하여 공급된다. 다른 하나는 生殖機能과 發育을 촉진하는 物質基礎인 天癸와 腎氣의 작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精(先天의 精)으로, 이는 인체의 生育·繁殖의 기본이며, 남녀교합의 精氣로서 이러한 精의 생성·저장과 배설을 腎이 주관한다는 것으로 ‘生殖之精’이라고도 한다. 이 생식방면의 精은 남녀 성교의 陰液으로 볼 수 있으며, 인류가 生育·繁殖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체 발육에 있어 성숙단계가 되면 자연히 精氣는 충만하여 生殖作用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腎臟 자체가 간직하고 있는 精은 先天의 기초로서 부모로부터 稟受되어지며 後天之 精氣에 의해서 보다 충실해진다²⁶⁾.

『素問·上古天真論』²⁷⁾에 “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二七而天癸至，任脈通，太衝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 腎者主水，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故五臟盛，乃能瀉。今五臟皆衰，筋骨解墮，天癸盡矣，故髮鬢白，身體重，行步不正，而無子耳。”라고 하여 腎은 性徵의 발달과 쇠퇴, 그리고 생식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臟으로 五臟六腑의 精을 간직하고 있으며, 사람이 중년에 이른 후에 腎의 精氣가 衰少해짐에 따라 天癸 또한 衰少하게 되니 성기능과 생식능력이 점차 衰退하고, 형체 또한 나날이 衰老하여 노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靈樞經脈』에서는 “사람이 생겨날 때에 먼저 精이 생겨나고 精에서 발육하여 腦髓가 생기며 점차로 骨이 형성되어 根幹이 되며, 經脈이 순환하여 血氣를 통하게 하여 영양하고 筋은 骨格을 보강하며 肉이 이를 둘러싸고, 皮膚가 표면을 단단하게 감싸서 보호하고 毛髮이 자라며, 음식이 胃에 들어가 脈道가 통하게 되고 血氣가 이에 行하게 된다”고 하여, 인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胚胎時에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이 精이라고 하였다. 이런 精이 기초가 되어야만 腦髓·骨格·筋脈·皮肉·毛髮 등의 형체와 조직이 점차적으로 生長하여 完備케 되므로 精을 ‘생명의 기초’, ‘先天의 眞氣’라고 한다. 그래서 ‘先天之精’이 되는데, 이 先天의 精은 後天之 精을 마련하는 물질적인 기초가 되며, 또한 後天之 精의 不斷한 영양에 힘입고, 後天之 精도 先天의 精의 작용에 依賴하여 비로소 부단하게 化生할 수 있으므로, 兩者는 ‘相互依存·相互爲用’의 긴밀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腎藏精’을 腎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腎을 가리켜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封藏之

25) 張介賓 편, 張氏類經, 서울, 성보출판사, 1982, p. 33.

26)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p. 318-319.

27) 洪元植 編,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11.

本”이라고 하였다²⁸⁾.

또한 腎은 작용이 強力하고 精巧하며 多能하므로 “作強之官，伎巧出焉.”이라 하였다. 이는 腎精이 生하는 髓가 骨을 滋養하여 強하게 하므로 ‘作強’이 되고, 腎精이 腦를 滋養하여 智力을 왕성하게 하므로 ‘伎巧’가 나옴을 말한 것이다.

2) 主水

主水는 腎臟이 인체 수액대사의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주관함을 의미한다. 腎의 기화작용은 수액대사의 생리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한다. 특히 소변의 생성과 배설은 腎의 기화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腎이 소변을 생성하는 氣化기능은 ‘腎陽爲開’와 ‘腎陰爲闔’간의 균형으로 설명되어진다. 즉, 開하면 소변이 생성·배출되고, 闔하면 필요한 수액이 보류되고 다시 흡수된다. 腎이 소변을 생성하는 氣化기능은 전신의 수액대사에서 극히 중요한 主宰와 調節작용이므로, 『內經』에서는 腎을 ‘主藏’, ‘主津液’이라고 하였다.

3) 主納氣

腎의 納氣기능은 실제로 腎의 封藏機能에 있어서 호흡운동 중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도 또한 腎中精氣가 그 물질적인 기초가 된다.

腎主納氣도 腎主閉藏에 대한 설명 중에 한부분이다. 腎이 肺가 흡입한 清氣를 攝納하여, 呼吸·表淺作用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腎氣의 攝納은 肺氣의 肅降을 돕고, 肺가 吸氣하는 深度는 주로 腎의 攝納機能에 의지하며, 呼氣는 주로 肺의 宣發機能에 의지한다.

4. 肝者, 罷極之本

1) 罷極에 대한 語義

罷極之本은 筋이 인체의 피로의 근본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²⁹⁾. 罷는 疲와 같은 뜻이고, 罷極

이라 함은 죽는다는 뜻인데, 이는 肝은 血을 主해서 血이 다하면 극도로 피곤하고 다시는 舉動·起動을 하지 못해서 죽는다는 뜻이다. 즉, 肝은 인체 운동의 발원지로 肝血이 운동의 근본인 筋을 滋養하는 까닭에 ‘罷極之本’이라 하였다.

肝屬木이고 木屬春이다. 春에는 陽氣가 方暢하고 만물이 發揚하는데, 만물이 春을 고대함은 生을 위함이다. 그러나 肝의 작용은 血에 있고, 血의 源泉은 腎에 있으며, 腎은 水를 生하는 원천으로 北極이다. 이 北極의 水源은 腎이 사용해서 水源이 고갈되는 일은 극히 드물고 肝의 過用으로 水源이 고갈되어서 肝이 다시는 起動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즉, 腎을 과멸시키는 것은 腎 자신이 아니고 土克水하는 脾土도 아니며 水生木하는 肝이다. 그래서 ‘罷極之本’이라고도 하였으니 罷는 破字와 같은 뜻이다³⁰⁾.

2) 罷極에 대한 諸家の 논란

肝이 罷極之本이 된다는 『內經』의 설명에 대하여, 유독 많은 諸家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주장도 분분하다. 諸家들의 견해를 나열하고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疲勞·過勞

罷는 음과 뜻이 ‘疲’와 같다. 많은 의가들이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馬蒔는 “肝主筋，故勞倦罷極，以肝爲本.”³¹⁾이라 하였고, 張志聰³²⁾은 “動作勞甚爲之罷”라고 하였으며, 姚止庵³³⁾은 “罷與疲通。肝主筋，過勞則運用乏竭而困倦矣。故云罷極。”라 하였고, 吳崑³⁴⁾은 “罷，音皮。動作勞甚，謂之罷極。肝主筋，筋主運動，故爲罷極之本。”이라고 하였으며, 張介賓³⁵⁾도 “人之運動，

28)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319.

29)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270.

30) 宋点植 撰, 醫學輯要,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 328.

31) 馬蒔 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1.

32) 張志聰 撰, 新編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9.

33)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3, p. 49.

34) 吳崑, 內經素問吳注, 제남, 산동과학기술출판사, 1984, p. 47.

35) 張介賓 撰, 張氏類經, 서울, 성보출판사, 1982, p. 33.

由乎筋力, 運動過勞, 筋必罷極.이라 하였다.

이상의 모든 해설은 字義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에 집착한 것으로, 본질 전체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를 테면 본질의 전체 문장에서는 공히 五臟의 생리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肝을 언급할 때에만 병리현상으로 했다. 肝이 인체의 피로·노곤의 근본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李今庸이 “즉, 간이 인체에 대해 유해한 물질을 이루게 된다”³⁶⁾고 설명한 것과 같다³⁷⁾.

(2) 罷極

高世栻³⁸⁾은 “罷, 作罷. … 肝者, 將軍之官, 如熊羆之任勞, 故爲罷極之本.”고 하였고, 최근에 于天星³⁹⁾은 按語에서 “宋代의 『集韻』에서는 ‘罷’를 혹 줄여서 ‘罷로 적는다.’고 지적해 내고 있다. 다시 篆書體의 字形結構로부터 볼 것 같으면, ‘罷’와 ‘罷’ 두 字의 형태는 매우 서로 근사하니, 혹은 좀먹은 簡을 傳抄함이 잘못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인락⁴⁰⁾이 “于天星이 “心者生之本, 肺者氣之本, 腎者封藏之本, 脾者倉廩之本과 함께 검토하여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高世栻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공통점이란 하나는 生氣封藏倉廩이 모두 생리적인 점이고, 다른 하나는 封과 藏이 의미가 같고 倉과 廩이 의미가 같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공통점과 틀을 같이 한다면 罷와 極은 의미가 같아야 하며 생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內經』의 기본 사고가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는 것에 있고 이를 드러내는 『內經』의 문구들도 대구를 이루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전제조건아래, 高世栻의 설에 동의한다.”고 하여 高世栻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36) 則肝就成爲對人體有害的東西了.

37) 高峰, “肝者罷極之本”之我釋, 山東中醫雜誌, 1990년 1기 / 권영규 총편, 논문으로 보는 중의학 총론, 서울, 법인문화사, 2001, p. 77.

38)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 80.

39) 于天星 按 /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 84.

40) 김인락, 肝者 罷極之本에 대한 오행론적 해석, 대한원전외과학회지, 1994년 8권, p. 14.

(3) 停止

罷(ba)는 그만두다, 정지하다는 뜻이 있다. 極은 지치다, 피곤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는 의가들은 罷極之本은 즉, 피로를 없애주는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肝은 血을 藏하고, 筋을 主하여 肢體의 운동을 지지할 수 있으며, 피로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때문에 罷極之本이라 한다. 그러나 『內經』 본래의 뜻을 세밀히 연구하면 ‘極’이 결코 피곤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다.

高峰⁴¹⁾은 “罷는 ‘ba’로 읽고, 정지·완결의 뜻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테면 『史記·秦始皇本紀』에서 “秦出兵, 五國兵罷”라 하였다. 極은 말단극점의 뜻이 있다. 이를테면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動復則靜, 陽極反陰”라고 하였다. 臟腑 기능이 太過와 不及의 상태가 되면 모두 병이 되며, 이러한 太過와 不及은 곧, ‘極’이다. 이에 의거하여 필자는 “肝者 罷極之本이다”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肝은 臟腑氣血 기능의 문란을 조절·제지하며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회복하는 근본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肝은 五行 중에 木에 속한다. 기능상 曲直剛柔의 특성이 있어 이른바 “木은 조리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다. 즉, 木은 그 자연에 순응하고, 그 성능을 이루며 정상적인 생리활동 규율을 위배할 수 없다는 말이다. 肝은 疏泄을 主한다. 이것은 肝이 升發透泄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가리키며, 肝의 疏泄기능은 臟腑氣機의 정상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肝은 罷極之本이 된다. 이것은 肝이 疏泄기능을 조절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여 罷極之本을 생리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4) 能極

罷는 ‘能(nai)’과 통한다. 李今庸⁴²⁾은 “能字에는 耐(견디다)의 뜻이 있다. 또한 ‘極’에는 ‘피로하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罷極’이란 ‘能極’으로

41) 高峰, “肝者罷極之本”之我釋, 山東中醫雜誌, 1990년 1기 / 권영규 총편, 논문으로 보는 중의학 총론, 서울, 법인문화사, 2001, pp. 78-79.

42) 裴秉哲 역,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성보사, 1994, p. 131.

보아서 ‘피로에 견디게 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후인들이 ‘能’에 ‘耐’와 ‘能極’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직 ‘罷極’이란 단어에 얽매어 ‘能’자 위에 ‘四’자를 더하여 ‘罷’로 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사람의 운동은 筋力의 盛衰에 기인하고, 肝은 筋을 주관하므로 인체가 피로하고 힘이 없는 것은 肝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비록 경문의 뜻과 매우 근접했으나, ‘罷’를 ‘能’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많지 않고, 또한 ‘罷’자를 연구하는 후인들이 머리 위에 첨가된 ‘四’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별로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의학자들은 믿고 따르지 않고 있다.

(5) 四極

錯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 丹波元堅⁴³⁾은 “或曰罷極當作四極. 四極見湯液湯液醪禮論. 卽言四支. 肝其衝在筋. 故云四極之本也.”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상 諸家の 견해를 종합해 보면, 罷極은 ① 疲勞過勞, ② 罷極, ③ 停止, ④ 能極, ⑤ 四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罷極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한 이유는 단순히 단어의 뜻만을 해석했느냐, 전후문맥을 살펴서 생리적으로 혹은 병리적으로 보았느냐, 착간으로 보았느냐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았든 罷極은 肝의 血·筋과 유관함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其充在筋

筋은 筋膜으로 肌筋·韌帶 등을 포괄하며 관절과 肌肉을 연락하고 肢體關節의 운동을 주관한다. 그래서 王冰은 “夫人之運動者, 皆筋力之所爲也.”⁴⁴⁾이라 하였다. 肝과 筋의 관계 및 肝氣의 充盛여부는 筋을 살핍으로써 알 수 있는데, 『內經』에서는 ‘肝主身之筋膜’(『素問·痿論』), ‘肝之合筋, … 諸筋者, 皆屬於節’(『素問·五臟生成』), ‘肝

生筋’(『素問·五運行大論』), ‘宗筋主束骨, 而利機關也’(『素問·痿論』)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움직여서 腎의 水氣를 소모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도중에 變怪가 생겨서 부적절하게 소모되는 것이 두 배나 많다. 視聽言動이 모두 水氣에서 生하고, 快樂遊興이 모두 水氣에서 生하는데, 過動·過用하면 變怪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五勞·六極·七傷은 모두 水氣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된다. 『素問·宣明五氣』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是謂五勞所傷.”이라 한 것처럼, 기거·운동은 모두가 筋을 사용하고 뼈에 바탕을 두므로 筋骨이 一家가 되며, 신체의 중대하고 어려운 일은 이를 주관하는 肝이 한다.

筋膜의 영양은 肝血의 滋養에 의하고 筋의 정상적인 활동은 肝이 주관하므로 ‘肝主筋’이라 한다. 肝血이 충족하면 筋膜營養을 충분히 하여 筋力이 強健하고 運動이 有力하면 관절활동이 원활하나, 筋이 肝血의 濡養이 失調되면 筋力이 온전치 못하고 운동이 不利하게 된다. 이와 같이 肝血不足으로 筋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을 『素問·上古天真論』⁴⁵⁾에서는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이라 하였다.

또한 筋은 생식계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前陰은 宗筋이 모인 곳으로 肝의 經脈은 陰器를 돌아 小腹에 이른다. 때문에 房勞로 인하여 筋의 罷極이 심하면 생식계통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素問·痿論』⁴⁶⁾에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及爲白淫. … 筋痿者, 生於肝, 使內也.”라 하였다.

5.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醫學入門』에 胃는 일명 ‘太倉’이라 하니, 穀物을 저장하는 건물을 ‘倉’이라 하고 金錢寶貨를 저장하는 건물을 ‘庫’라 하며, 倉 중에 큰 것을 ‘廩’이라 하고, 창고 중에서 가장 커서 곡물은 무

43) 丹波元堅 編, 素問紹識,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p. 418.

44) 王冰 編註, 신편 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77.

45) 洪元植 編,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11.

46) 洪元植 編,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 166.

엇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건물을 ‘太倉’이라 하니, 太는 大와 동일하게 사용된다⁴⁷⁾.

『素問·六節藏象論』에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倉廩之本，營之居也，名曰器，能化糟粕，轉味而入出者也。”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음식물의 소화흡수는 口·食道·脾·胃·脾·大腸·小腸·肝·膽 등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小腸은 ‘小腸者，受盛之官，化物出焉.’이라 하여 음식물을 소화하며 영양물을 흡수하고 淸濁을 분별하여 분비하는 기능이 있고, 大腸은 ‘大腸者，傳道之官，變化出焉.’이라고 하여 小腸에서 淸濁으로 분별된 찌꺼기를 배설하는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註家로는 馬蒔⁴⁸⁾ 등⁴⁹⁾이 있는데, “然脾胃屬於五藏，而與胃以膜相連，故此脾胃爲倉廩之官，大腸爲傳道之官，小腸爲受盛之官，三焦爲決瀆之官，膀胱爲州都之官。然六府皆所以受物，實而不滿者也。故皆可以爲倉廩之本耳。”라 하여, 倉廩之本은 倉廩之官·傳道之官·受盛之官·決瀆之官·州都之官인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이 합쳐진 개념으로 이들 六府는 水穀을 받아들여 六腑의 기능 중에 하나인 ‘實而不能滿’하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醫家⁵⁰⁾⁵¹⁾⁵²⁾들이 이 의견에 同調하였고, 高士宗⁵³⁾만은 “靈蘭秘典論云，脾胃者，倉廩之官。故脾者，倉廩之本，消化水穀，…”라 하여, 脾만이 倉廩之本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胃와 腸은 受納작용을 서로 交替하게 된다. 즉, 水穀入口則胃實而腸虛，食下則腸實而胃虛，故曰實而不滿，滿而不實也라고 하였다. 胃의

受納작용은 胃氣에 의한 것으로 胃氣가 腸實하면 善納하고 胃氣가 허약하면 受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를 胃中元氣盛則能食而不傷，過時而不飢. 脾胃俱旺則能食而肥，脾胃俱虛則不能食而瘦라고 하였다. 能食하면 受納기능이 강한 것이고, 不能食하면 受納의 기능이 弱한 것으로 胃의 수납기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⁵⁴⁾.

1) 胃氣는 生死脈의 근본

胃의 氣는 五味를 입으로 수납해서 五臟의 氣를 養한다. 입은 근본 太陰에 속하므로 太陰과 陽明의 배합이고, 胃氣의 변화는 右手 氣口脈으로 나타나는데 氣口脈은 右手 魚際 後에 있으므로 이도 역시 太陰에 속한다. 그러므로 입도 太陰에 속하고 氣口脈도 太陰에 속해서 胃의 專用은 없고 胃氣의 出入과 動靜이 전부 太陰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胃의 主役은 淸氣는 上升시키고 濁氣는 下降시켜서 모든 六腑의 陽이 起源地가 되고 飲食을 소화시켜서 五臟을 安堵함이니, 腑는 臟을 위해서 動함을 알 수 있다.

脾胃는 五臟의 倉廩으로 五臟의 生의 資源이 여기에서 生하는 반면에 五臟의 死의 원인도 여기에서 生하므로, 五臟을 치료함에는 胃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胃氣가 왕성하여야 五臟이 건전하고 胃氣가 건전하지 못하면 五臟이 허약해져서 五臟이 動함에 전부 胃氣를 끼고 動하므로 醫書에 ‘脈無胃氣者曰 眞藏脈이니 眞藏脈이 見者는 死라’한 것이 이것이다. 胃氣라 함은 脈動이 柔함을 말함이니, 土氣는 근본 柔하므로 胃氣가 五臟으로 들어가면 五臟이 柔해지고 五臟이 柔해지면 動하는 脈도 따라서 柔하게 나오게 된다.

III. 결 론

『素問·六節藏象論』에 나타난 生之本, 氣之本, 封藏之本, 罷極之本, 倉廩之本은 각각의 생리기

47) 宋点植 撰, 醫學輯要,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 328.

48) 馬蒔 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81.

49) “足太陰獨受水穀之濁，爲轉輸之官，腸胃主受傳水穀，三焦主決瀆之官，膀胱爲水精之官，故皆爲倉廩之本.”，張志聰 편주, 上揭書, p. 89.

50) “皆可受盛，轉運不息，故爲倉廩之本.”，王冰 編註, p. 78.

51) “皆可受盛，轉運不息，故爲倉廩之本.”，姚止庵, 上揭書, p. 49.

52) “此六者皆主盛受水穀，故同稱倉廩之本.”，張氏類經, 上揭書, 1982. p. 34.

5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 80.

54)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p. 301.

능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것들은 面·毛·髮·爪·脣 등과 같은 부위로 표출이 되고, 血·皮·骨·筋·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를 藏象이라 한다.

心이 生之本이 되는 것은 心이 君主之官으로 神明을 주관하고, 血은 心에 속해 있고, 脈은 血의 府가 되기 때문이고, 神明的 變化象은 얼굴에 나타난다. 肺가 氣之本이 되는 것은 호흡을 통해 나타나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氣를 주관하기 때문이고, 宣發肅降에 의해서 호흡작용이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氣라 함은 營氣보다는 衛氣를 말한다. 腎이 封藏之本이 된다. 封藏은 閉藏蟄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체에서는 腎藏精·腎主水·腎主納氣 등으로 표현된다. 肝이 罷極之本이 되는 것은 肝主筋해서 疲勞를 담당하기 때문이며, 罷極은 註家の 견해에 따라 ① 疲勞·過勞, ② 罷極, ③ 停止, ④ 能極, ⑤ 四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나누는 관점은 罷極이 생리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병리적인 개념인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이 倉廩之本이 되는 것은 水穀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쉬지 않고 運化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이들 六個의 臟器가 모두 모여야 倉廩之本의 역할을 하며, 脾胃는 後天之本이 되며, 특히 胃氣는 生死를 결정하는 근본이 된다.

7. 馬蒔 編,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
8. 吳崐, 內經素問吳注, 제남, 산동과학기술출판사, 1984.
9. 張介賓 撰, 張氏類經, 서울, 정보출판사, 1982.
10. 張志聰 撰, 新編素問集註, 서울, 대성문화사, 1994.
11.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3.
12. 高峰, “肝者罷極之本”之我釋, 山東中醫雜誌, 1990년 1기 / 권영규 총편, 논문으로 보는 중의학 총론, 서울, 법인문화사, 2001.
13. 高士宗 / 于天星 按, 黃帝內經素問直解,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14. 김인락,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的 解釋,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4년 8권.
15.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정보사, 1994.
16. 丹波元堅 編, 素問紹識,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4.
17.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參考文獻

1. 李中梓, 醫宗必讀,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7.
2.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3.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4. 宋点植 撰, 醫學輯要, 대전, 문경출판사, 1991.
5. 이경우 역, 편주역해 황제내경소문¹, 서울, 여강출판사, 1994.
6. 王冰 編註, 신편 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